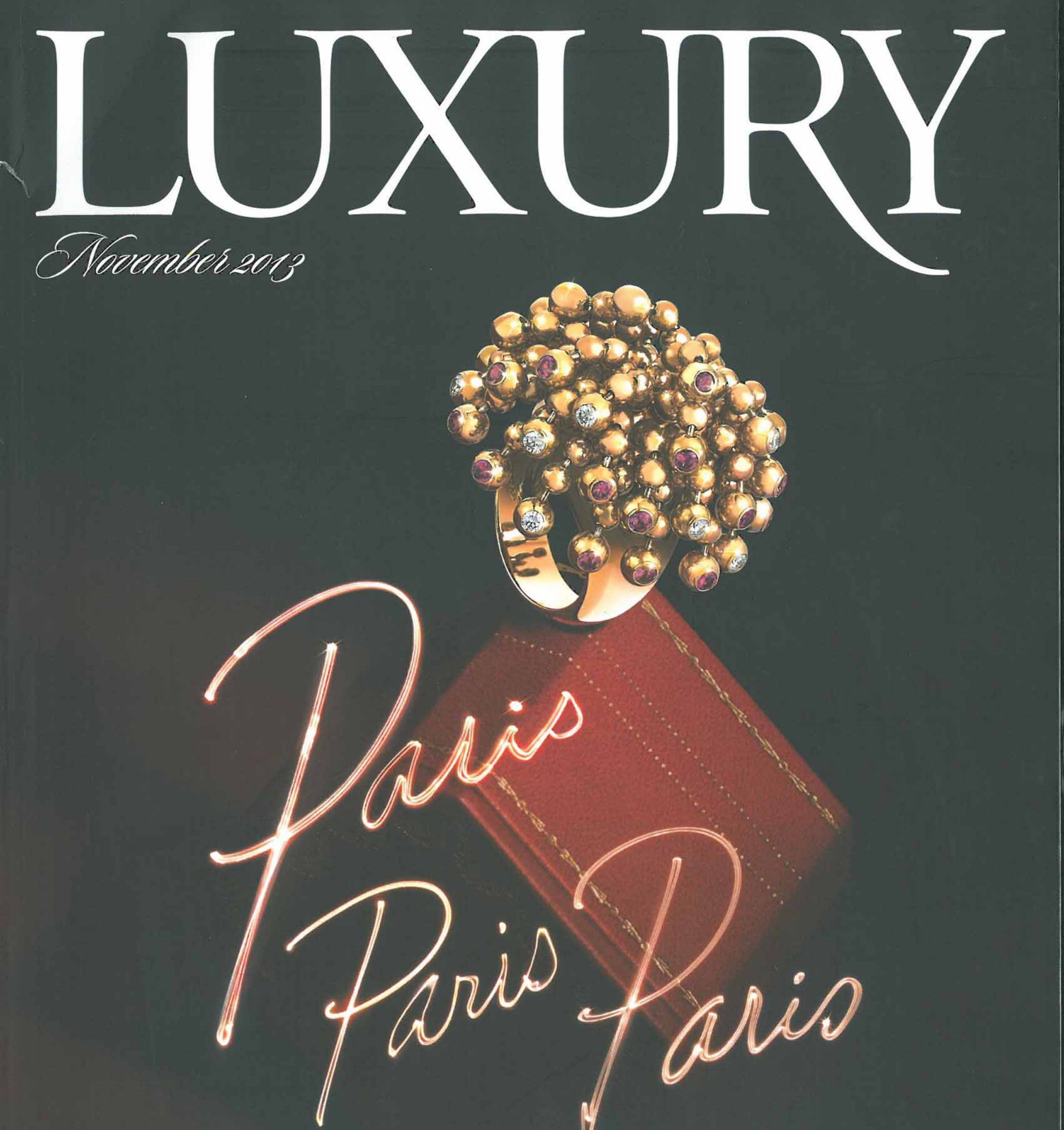
LUXURY

November 2013



고독해서 더 위대한 최고의 지휘자 33

두번째 피부, 파운데이션

음악에 바치는 헌사, 뮤직 뮤지엄 5

가을을 위한 체크 패턴

Cartier

REALWAY

재치 있는 프린트의 트윌리가
단순한 핸드백에 환기를 불어넣는다.

건축물이 만드는 공간감을 3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정정주, 'Transfer 가변크기'.

블랙 & 화이트 룩에 빨간 클러치백과
립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패션 디자이너 연지은.

A Taste of Art

2013 한국국제아트페어를 찾은 이들의 옷차림에서
세련된 안목을 엿볼 수 있었다.

EDITOR LEE YOUNGWOO **PHOTOGRAPHER** KIM HYUK

맨투맨 티셔츠
네크라인에
스카프를 말아 넣은
센스가 돋보인다.
대학생 문종모.

화려한 프린트를 과감하게 매치한 멋쟁이 모녀.
강사 이한분과 기자 김선경.

상·하의를
데님으로 통일한
옷차림을
가죽 재킷으로
마무리했다.
대학원생 유동길.

여유 있는 핏의
화이트 셔츠가
가녀린 여성미를
전한다.
웹 디자이너
박미옥.

55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하기도 한 김수자
작가의 대표작. 'Bottari
Truck Migrateurs'.